



# 내년은 자매도시제휴45주년 연계성있는 화이트호스시

오스트레일리아·화이트호스시와 마쓰도시가 자매도시를 맺은 지 내년으로 45주년을 맞이합니다. 두 도시의 연계성을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문의 문화관광과 ☎366-7327



### 화이트 호스시

면적 약64km<sup>2</sup>(마쓰도시와 거의 비슷)  
인구 약15만명 (마쓰도시의 약3분의 1)  
오스트레일리아·메르볼른에서 약 동쪽으로 15km에 있는 자연과 사람들의 활기가 조화를 이룬 마을입니다.

### 자매도시 교류의 계기

1958(소화33)년, 시립 제5중학교 여학생이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에, 「유칼리씨앗을 주세요」라는 편지를 보냈고, 대사관은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인구 급증때문에 급속히 나무들이 사라지게 된 마쓰도시는, 대사관의 협력을 얻어 계획적으로 유칼리 식수를 행했습니다. 1970(소화45)년, 당시의 마쓰모토 기요시 시장이 북스·힐시 (현 화이트호스시)를 시찰. 나무가 많고 살기 좋고 수도 메르볼른에 가까운 입지는 마쓰도를 조성하는데 참고가 될거라고 여겨, 1971(소화46)년 5월12일에 자매도시 제휴 조인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문화홀에 있는 국제우호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5월12일은 그린·트리·데이(나무의 날) 두 도시의 자매도시 제휴를 기념하여 더욱 돈독한 우호와 두 도시의 녹화추진을 위하여「기념식수」와「국제전화 회담」등을 행합니다.

<화이트 호스시장으로 부터의 메시지>  
우리는 매년, 두 도시가 오랫동안 자매도시로 지내온 것을 축하하여「마쓰도 주간」이라는 이벤트와 활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45주년 기념일에 서로의 돈독한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 두 도시에게, 매우 특별하고 기념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이트호스회장 앤드류 먼로에

찾아 보자!

## 시내에도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관계

매년5월12일은 그린·트리·데이(나무의 날) 두 도시의 자매도시 제휴를 기념하여 더욱 돈독한 우호와 두 도시의 녹화추진을 위하여「기념식수」와「국제전화 회담」등을 행합니다.

사전설명회 9월13일 (일)13시 ~ 14시  
장소 유우마쓰도  
신청 필요없음. 직접 회의장으로  
※보호자 대리인 출석도 가능

**가 보자!!** 신청필요

청소년 자매도시  
파견학생 모집

파견예정기간 2016년3월15일 (화) ~ 24일 (목)  
파견처 오스트레일리아·화이트호스시  
체재방법 홈스테이  
대상 시내거주의 중·고등학생  
(사전설명회 참가가 필요)  
모집인수 7명  
(작문및 면접[영어회화있음]으로 선별)  
비용 22만엔정도문의  
(공재)마쓰도시 국제교류협회☎366-7310



<유칼리나무>  
시내 여기 저기에 심어져 있습니다. 건조에도 강하여, 더운 여름에도 잎을 반짝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맨 홀 뚜껑>  
시내의 맨 홀뚜껑에는 귀여운 코알라가족이 있습니다. 코알라가 세 마리 있는 것은 매우 진귀하다고 합니다.



<다리 난간>  
록간강의 신코가사키다리의 난간에도 코알라가 있습니다.